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
Moral Emotion and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ce*
- Focusing on Guilt, Shame, and Empathy -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한 세 영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ae-Young Han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aggression and moral emotion including guilt, shame, and empathy in early adolescence. In a sample of 359 early adolescents (187 boys, and 172 girls) in Daejeon city,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1. Boys showed more linguistic and roundabout aggression, and girls showed more anger, guilt and empathy. Older adolescents showed more shame than younger adolescents did, whereas younger adolescents showed more guilt and empathy than did older adolescents.
2. Shame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all types of aggression, whereas guilt and empathy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different types of aggression.
3. Moral emotions - guilt, shame, and empathy -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ts. The degree of the effectiveness of moral emotions on aggression depends on the types of aggression, gender, and age of participants.

주제어(Key Words):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 죄책감(guilt), 수치심(shame), 감정이입(empathy), 공격성(aggression)

I. 서론

공격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 관련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사회부적응적인 문제와 폭력을 유발시키는 심리적인 특성(Loeber & Stouthamer-Loeber, 1998)으로 알려진 공격성을 본능이론에서는 타고난 것으로 설명했으며(Freud, 1933; Lorenz, 1966), 학습이론에서는 강화와 관찰을 통해 학습된 행동이라고 주장했고(Patterson, 1976), 사회적 정보처리이론에서는 상대방 행동의 단서를 왜곡하여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Dodge, 1980; Dodge & Somberg, 1987). 이후에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구조적인 요인(Atwater, 1992), 경제적 좌절감(Wolff, Rutten, & Bayer, 1992), 공격적 모델을 제시하는 대중매체(Huesmann & Miller, 1994), 가족의 영향, 특히 부모의 양육 행동(김민정, 도현심, 2001) 등 주로 공격성에 대한 환경의 영향이 밝혀져 왔다.

공격성이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는 심리적인 특성임을 고려할 때, 밝혀진 외적 요인에 비해 내적 요인에 대한 정보는 적은 편이다. 최근 기질(김희조, 1994)과 정서조절(한유진, 2005) 등의 요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고, 연령과 성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Fabes & Eisenberg, 1992; 김민정, 도현심, 2001; 정경택, 2003). 특히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편으로 대체로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론적으로는 본능이론과 사회인지론 외에도 욕구 좌절 이론 등에 의해 접근되어 왔는데,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좌절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한 정보는 많지 않으며, 특히 공격성의 도덕적인 요인에 대한 설명은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공격성의 반사회적인 속성은 초자아 즉, 내면의 도덕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성은 공격성과 관련된 내적 요인으로 탐색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여겨진다.

도덕성은 오랫동안 인지발달영역에서 접근되어왔고, 도덕성을 정서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간과되어왔다. 최근에 이르러 도덕적 특징을 가진 정서가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며 부도덕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수용되고 있으며(Ben-Ze'ev, 1997; Blum, 1980), 특히 죄책감, 감정이입, 수치심 등의 정서는 도덕성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김경희, 2002).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 중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죄책감은 여러학자들에 의해 주로 내면의 갈등상황을 반

영하는 도덕적 정서로 설명되어져 왔다. Freud의 이론에서는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초자아로 인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또는 생각을 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Jung은 모순된 두 감정 사이의 갈등을 느껴서 받게 되는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이라고 설명하였고 Murray는 초자아에 의한 처벌에 대한 후회감을 죄책감이라고 하였다(정은수, 1985, 재인용). 따라서 죄책감이 형성되면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과 양심이 발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죄책감 관련 연구들은 죄책감의 수준과 친사회적·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으며(Eisenberg, 2000; Eisenberg & Fabes, 1991, 1995; Fabes, Eisenberg, N, & Eisenbud, 1993; Hoffman, 2000; Zahn-Waxler, Cole, Welsh, & Fox, 1995; 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괴롭힘과 같은 반도덕적인 행동과의 유의미한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Menesini, Sanchez, Fonzi, Ortega, Costabile, & Feudo, 2003). Tangney(1998)의 연구에서는 죄책감을 크게 느낄수록 부정적 행동을 교정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Lewis(1971)는 죄책감은 수치심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하였고 이는 죄책감이란 특정 행동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아와는 분리된 경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죄책감은 나쁜 행동에 대한 긴장, 양심의 가책, 후회의 감정과 관련되므로, 죄책감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죄책감의 차이에 대해 Williams와 Bybee(1994)는 공격적이고 외현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5학년과 8학년에는 증가하나 나이가 더 들수록 감소하고 내면적인 사고와 배려 없음에 대한 죄책감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더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연과 하영희(2000)의 연구에서는 가장 어린 중학교 1학년이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도 있는 반면(정은수, 1985), 내면적 사건에 대한 죄책감의 수준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Williams & Bybee, 1994). 이렇듯 연령과 성에 따른 죄책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연령과 성에 따라 죄책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공격성, 특히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어왔고, 죄책감의 성차에 대한 보고는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감과 공격성의 상호관련성이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죄책감이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과 관련된 반면, 수치심은 자아에 대해 무가치하다거나 무력하다고 느끼

는 마음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거부적인 반응이나 부끄러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욕구 등을 불러일으킨다(Menesini *et al.*, 2003). 이러한 수치심과 공격성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나,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는 보고되어 왔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하영희, Edwards, 2004; 변보기, 강석기, 2002)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암시하며, 이는 수치심이 공격성의 예측요인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 접근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수치심과 죄책감 개념의 구분이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요인으로서 각각의 개념이 달리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도덕성 연구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함께 연구되어 왔고(Bedford & Hwang, 2003; Fedewa, Burns, & Gomez, 2005; Olthof, Ferguson, Bloemers, & Deij, 2004)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치심을 죄책감과 구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나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감정인 죄책감이 부족할 때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성의 유발요인으로 추론되는 죄책감과, 자아에 대한 좌절감이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성의 유발요인으로 추론되는 수치심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공격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특정행동에 대한 후회의 감정과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 어느 쪽의 도덕적 정서가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더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이입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느낌과 경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서로 다른 관점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Menesini, *et al.*, 2003). 간단히 정의하자면 타인의 감정상태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정서의 한 측면(하영희, 2001)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변인으로 제안되어 왔으며(Hoffman 1977), 국내외 연구결과들 또한 감정이입능력의 부족을 공격성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하였다.

Menesini 외 5인(2003)의 연구에서는 공격아들은 흔히 감정이입능력이 부족하며, 피해아의 감정과 희망을 고려하고 걱정하는 능력이 결여되어있다고 하였고, 감정이입능력은 도덕적인 책임감의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하영희와 Edwards(2004)의 연구에서도 감정이입의 수준이 낮은 경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외 감정이입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많지 않으며, 다만 감정이입 훈련을 통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감정이입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선호(2005)의 연구결과 감정이입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과 같은 공격성의 한 측면에 있어서도 죄책감과 함께 감정이입의 결핍이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edersen, Beven, Walker, & Griffiths, 2004).

국내의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죄책감과 감정이입 위주로 이루어졌다.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서 다루어져왔고(박선호, 2005; 하영희, Edwards, 2004), 수치심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도덕적 정서 중 비교적 많이 다루어진 죄책감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공격성보다는 주로 규칙위반과 관련시켜 분석하거나, 수치심 등과 더불어 도덕성의 한 영역으로서 개념정의와 경향파악에 주력하여, 죄책감의 정도에 따른 공격적인 성향의 수준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연구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죄책감이 여성의 우울성향(심중은, 이영호, 2000)이나 피학대 후의 스트레스(전철은, 현명호, 2003)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고,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죄책감의 특징을 파악하거나(김경희, 2002), 주로 규칙위반 행동(김경연, 하영희, 2000, 2003)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도덕적 정서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도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러 정서 및 행동문제, 이를테면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에 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하나의 도덕적 정서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도덕적 정서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므로 여러 가지 도덕적 정서를 함께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연구에서도 죄책감은 동정심 및 수치심 등 인접 정서와의, 또는 도덕성 영역과의 개념적 구분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지거나 (Leith, & Baumeister, 1998), 수치심(Bedford & Hwang, 2003), 동정심(Pedersen *et al.*, 2004), 후회(Berndsen, Plight, Doosje, & Manstead, 2004)등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개념으로 파악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폭력(Gilligan, 2003; Menesini *et al.*, 2003), 불복종(Fabricius, 2004)과 같은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죄책감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도 있으나 소수에 국한되며, 대부분 청년기 후기 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Berndsen *et al.*, 2004)로서 초기 청소년의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도

덕적 정서인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정서에 의해 예측된다고 밝혀진 공격성이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바(박선호, 2005; 변보기, 강석기, 2002; 정경택, 2003),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유형의 공격성, 즉,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 부정성, 우회적 공격성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하고 교정하려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세 가지 도덕적 정서가 연령과 성,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치료함에 있어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 도덕적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연령에 따라 도덕적 정서(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와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과 연령에 따라 도덕적 정서(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와 공격성 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성과 연령에 따라 도덕적 정서(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가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의 초기 청소년(남학생 187명, 여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로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0.19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04세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한 <표 1>을 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91명(27.5%)이었고, 대졸 이상이 240명(72.5%)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34명(40.4%), 대졸 이상이 198명(59.6%)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공격성 진단검사와 황정규(1964)의 공격욕구검사를 참고로 하여 문재경(1998)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 부정성, 우회적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공격성(6문항)은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처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하고(“누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맞아서 때린다.” 등), 언어적 공격성(6문항)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해를 끼치고자 하는 언어적 반응을 의미한다(“나는 화가 났을 때 심한 말을 한다.”, “나는 미운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한다.” 등). 적의성(5문항)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경계하는 경향을 뜻하고(“나는 때때로 미워하거나 질투심으로 가득찰 때가 있다.”, “친구가 나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등), 흥분성(6문항)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흥분하는 경향을 의미하며(“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리면 크게 화를 낸다.”,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	남아	187(52.1)	학년	초등 5학년	93(25.9)
	여아	172(47.9)		초등 6학년	132(36.7)
	계	359(100.0)		중학교 1학년	67(18.7)
		중학교 2학년		67(18.7)	
				계	359(100.0)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58(17.7)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149(45.2)
	41-45세	176(53.6)		41-45세	136(41.2)
	46-50세	76(23.2)		46-50세	42(12.7)
	51세 이상	18(5.5)		51세 이상	3(0.9)
	계	328(100.0)		계	330(100.0)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91(27.5)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34(40.4)
	대졸 이상	240(72.5)		대졸 이상	198(59.6)
	계	331(100.0)		계	332(100.0)

수 없다.” 등), 부정성(6문항)은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나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약속을 정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잘난체 할 때는 일부러 천천히 일함으로써 반감을 표시한다.” 등). 우회적 공격성(6문항)은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고집, 거부적 태도, 꾸물거리기, 상대방 무시 등의 행동 등을 포함한다(“나는 짓궂은 장난을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 등).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공격성의 문항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5, 언어적 공격성은 .73이며, 적의성은 .81, 흥분성은 .70, 부정성은 .65, 우회적 공격성은 .73이다.

(2) 죄책감

죄책감은 김정연과 하영희(200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괴롭힘 행동을 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를 4점 likert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약 내가 친구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다면, 나는...” “만약 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마련했다면, 나는...”, “만약 내가 숙제를 도와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모른체 했다면, 나는...”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로 나타났다.

(3) 수치심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일부로,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낮으며,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결핍되고 무기력하고 작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서주연, 2006). 본 연구에서는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 척도(Tangney & Dearing, 2002)의 수치심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을 아동학 연구자 2인이 국내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다음,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가 가치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인 SSGS의 수치심 영역의 신뢰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수치심 영역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나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척도를 수정한 신경일(1994)의 척도를 수정하여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감정이입의 내용에는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이 포함되었으며, “주위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으면 내 일도 잘 안되는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잠시동안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식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고,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3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 검정, Pearson의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과 연령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의 차이

성과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t=3.15, p<.01$), 적의성($t=-2.05, p<.05$), 우회적 공격성($t=2.52, p<.05$), 죄책감($t=-5.15, p<.001$), 감정이입($t=-6.67,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언어적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며 적의성과 죄책감 및 감정이입능력은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덕적 정서는 죄책감($t=6.91, p<.001$), 수치심($t=-2.14, p<.05$), 감정이입($t=2.82, p<.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즉, 공격성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덕적 정서에 있어서는 중학교 1, 2학년이 초등학교 5, 6학년보다 수치심을 많이 지각하였으며, 감정이입과 죄책감은 적게 지각하였다.

2. 성과 연령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 간의 상관관계

성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 남아와 여아 모두 수치심과 공격성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수치심이 클수록 공격성을 높게 나타내었다. 그러나 죄책감과 감정

〈표 2〉 초기 청소년의 성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			
			남아	여아	t	
공격성	신체	N	187	172	1.80	
		M(sd)	2.11(.54)	2.00(.54)		
	언어	N	187	172	3.15**	
		M(sd)	2.23(.50)	2.07(.51)		
	적의	N	187	172	-2.05*	
		M(sd)	2.30(.61)	2.43(.58)		
	흥분	N	187	172	.99	
		M(sd)	2.18(.59)	2.12(.58)		
	부정	N	187	172	-.73	
		M(sd)	2.25(.52)	2.28(.46)		
	우회	N	187	172	2.52*	
		M(sd)	2.23(.63)	2.07(.55)		
	도덕적 정서	죄책감	N	187	172	-5.15***
			M(sd)	2.91(.70)	3.26(.53)	
수치심		N	187	172	1.50	
		M(sd)	1.93(.65)	1.82(.70)		
감정이입		N	187	172	-6.67***	
		M(sd)	2.69(.50)	3.01(.50)		

*p<.05 **p<.01 ***p<.001

〈표 3〉 초기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t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공격성	신체	N	225	134	-.84	
		M(sd)	2.04(.53)	2.09(.57)		
	언어	N	225	134	-.73	
		M(sd)	2.14(.52)	2.18(.51)		
	적의	N	225	134	.11	
		M(sd)	2.36(.62)	2.35(.56)		
	흥분	N	225	134	.66	
		M(sd)	2.16(.57)	2.12(.61)		
	부정	N	225	134	.58	
		M(sd)	2.27(.46)	2.24(.53)		
	우회	N	225	134	-1.31	
		M(sd)	2.12(.59)	2.21(.61)		
	도덕적 정서	죄책감	N	225	134	6.91***
			M(sd)	3.25(.54)	2.79(.71)	
수치심		N	225	134	-2.14*	
		M(sd)	1.82(.67)	1.98(.68)		
감정이입		N	225	134	2.82**	
		M(sd)	2.90(.51)	2.75(.45)		

*p<.05 **p<.01 ***p<.001

〈표 4〉 성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간의 상관관계

		공격성					도덕적 정서			
		신 체	언 어	적 의	흥 분	부 정	우 회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
공격성	신 체	1 (1)								
	언 어	.668*** (.680***)	1 (1)							
	적 의	.479*** (.410***)	.441*** (.384***)	1 (1)						
	흥 분	.631*** (.661***)	.574*** (.590***)	.576*** (.580***)	1 (1)					
	부 정	.454*** (.454***)	.557*** (.525***)	.522*** (.400***)	.589*** (.535***)	1 (1)				
	우 회	.669*** (.653***)	.688*** (.705***)	.407*** (.345***)	.602*** (.563***)	.623*** (.561***)	1 (1)			
도덕적 정서	죄책감	-.156* (-.190*)	-.147* (-.230**)	.094 (.006)	.062 (-.072)	.045 (-.021)	-.133 (-.250**)	1 (1)		
	수치심	.293*** (.366***)	.210** (.247**)	.332*** (.551***)	.375*** (.506***)	.181* (.287***)	.299** (.271***)	-.143 (-.029)	1 (1)	
	감정 이입	-.082 (-.104)	-.150* (-.103)	.160* (.174*)	.064 (-.006)	.068 (.038)	-.116 (-.175*)	.542*** (.492**)	.011 (.000)	1 (1)

*p<.05 **p<.01 ***p<.001

남(여)

〈표 5〉 연령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간의 상관관계

		공격성					도덕적 정서			
		신 체	언 어	적 의	흥 분	부 정	우 회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
공격성	신 체	1 (1)								
	언 어	.660*** (.704***)	1 (1)							
	적 의	.341*** (.596***)	.327*** (.507***)	1 (1)						
	흥 분	.614*** (.701***)	.559*** (.625***)	.521*** (.656***)	1 (1)					
	부 정	.414*** (.498***)	.457*** (.641***)	.375*** (.632***)	.533*** (.599***)	1 (1)				
	우 회	.613*** (.740***)	.665*** (.758***)	.231*** (.596***)	.528*** (.681***)	.531*** (.675***)	1 (1)			
도덕적 정서	죄책감	-.334*** (-.001)	-.351*** (-.037)	.037 (.164)	-.124 (.105)	-.153* (.214*)	-.414*** (.081)	1 (1)		
	수치심	.379*** (.256**)	.306*** (.115)	.519*** (.264**)	.520*** (.338***)	.340*** (.075)	.280*** (.201*)	-.102 (-.048)	1 (1)	
	감정 이입	-.154* (-.038)	-.184** (-.146)	.178** (.223**)	-.051 (.117)	-.014 (.190*)	-.260*** (.005)	.622*** (.474***)	-.067 (.114)	1 (1)

*p<.05 **p<.01 ***p<.001

초등 5, 6 (중 1, 2)

이입은 공격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남아와 여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죄책감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 있어 신체적 공격성(남아 $r=-.156, p<.05$; 여아 $r=-.190, p<.05$)과 언어적 공격성(남아 $r=-.147, p<.05$; 여아 $r=-.23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우회적 공격성($r=-.250, p<.01$)과의 상관에 있어서는 여아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죄책감이 많을수록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나타냈고, 여아의 경우 우회적인 공격성도 적게 나타냈다. 감정이입의 경우 남아의 감정이입은 언어적 공격성($r=-.150, p<.05$) 및 적의성($r=.160, p<.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의 감정이입은 적의성($r=.174, p<.05$) 및 우회적 공격성($r=-.175, p<.05$)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경우, 남자는 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보이는 반면, 여자는 우회적 공격성을 적게 보이며, 남녀아가 모두 적의성은 더 많이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 초등학교 5, 6학년은 모든 하위영역의 공격성과 수치심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중학교 1, 2학년은 신체적 공격성($r=.256, p<.01$), 적의성($r=.264, p<.01$), 흥분성($r=.338, p<.001$), 우회적 공격성($r=.201, p<.05$)과 수치심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과 죄책감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신체적 공격성($r=-.334, p<.001$), 언어적 공격성($r=-.351, p<.001$), 부정성($r=-.153, p<.05$), 우회적 공격성($r=-.414, p<.001$)과 죄책감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중학교 1, 2학년은 부정성($r=.214, p<.05$)만이 죄책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공격성과 감정이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은 신체적 공격성($r=-.154, p<.05$), 언어적 공격성($r=-.184, p<.01$), 우회적 공격성($r=-.260, p<.001$)이 감정이입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적의성($r=.178, p<.01$)은 감정이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학교 1, 2학년의 적의성($r=.223, p<.01$)과 부정성($r=.190, p<.05$)은 감정이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3. 도덕적 정서(죄책감, 감정이입, 수치심)가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관련성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을 살펴본 결과 1.00-1.64 사이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에 따라 도덕적 정서가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도덕적 정서가 남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신체적 공격성에는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F=6.753, p<.001$), 수치심이 강할수록 신체적 공격성이 높아졌으며 도덕적 정서가 신체적 공격성을 10.0%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성에도 수치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4.518, p<.01$), 수치심이 클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아졌으며 도덕적 정서가 언어적 공격성을 6.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의성에도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9.905, p<.001$), 수치심이 클수록 적의성이 높았고, 도덕적 정서가 적의성을 14.0%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분성 역시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11.094, p<.001$), 수치심이 클수록 흥분성이 높았고 도덕적 정서가 흥분성을 15.4%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적 공격성에도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F=4.482, p<.001$), 수치심이 강한 경우 우회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으며 도덕적 정서가 우회적 공격성을 6.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부정성에는 도덕적 정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남아의 공격성에는 도덕적 정서 중 주로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도덕적 정서가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적 공격성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11.176, p<.001$), 수치심이 강하고 죄책감이 적을수록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으며 도덕적 정서가 신체적 공격성을 16.6%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수치심, 죄책감의 순이었다. 언어적 공격성에도 역시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6.978, p<.001$), 수치심이 크고 죄책감이 적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아졌으며 도덕적 정서가 언어적 공격성을 11.1%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수치심, 죄책감의 순이었다. 적의성에는 수치심과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28.738, p<.001$), 수치심과 감정이입능력이 클수록 적의성이 높았고, 도덕적 정서가 적의성을 33.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수치심, 감정이입순이었다. 흥분성에는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19.649, p<.001$), 수치심이 클수록 흥분성이 높았고 도덕적 정서가 흥분성을 26.0%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성에도 수치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F=5.224, p<.01$), 도덕적 정서가 부정성을 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이 클수록 부정성을 높게 나타냈다. 우회적 공격성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F=8.832, p<.001$), 수치심이 크고 죄책감이 적은 여아의 경우 우회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으며 도덕적 정서가 우회적 공격성을 13.6% 설명해주었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수치심, 죄책감 순이었다. 즉, 여아의 공격성 중 표현되고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공격성(신체적

〈표 6〉 도덕적 정서가 남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R ²	F
신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77	-.100	.100	6.753***
		수치심	.232	.279***		
		감정이입	-.035	-.031		
언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35	-.050	.069	4.518**
		수치심	.157	.204**		
		감정이입	-.125	-.125		
적의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71	.083	.140	9.905***
		수치심	.319	.343***		
		감정이입	.135	.112		
흥분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121	.121	.154	11.094***
		수치심	.392	.392***		
		감정이입	-.006	-.006		
부정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38	.051	.039	2.482
		수치심	.149	.188*		
		감정이입	.040	.038		
우회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47	-.053	.068	4.482**
		수치심	.213	.223**		
		감정이입	-.111	-.089		

*p<.05 **p<.01 ***p<.001

〈표 7〉 도덕적 정서가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R ²	F
신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173	-.169*	.166	11.176***
		수치심	.281	.361***		
		감정이입	-.028	-.021		
언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218	-.227**	.111	6.978***
		수치심	.176	.241**		
		감정이입	.010	.008		
적의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92	-.084	.339	28.738***
		수치심	.459	.548***		
		감정이입	.299	.216**		
흥분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79	-.072	.260	19.649***
		수치심	.421	.504***		
		감정이입	.041	.029		
부정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36	-.041	.085	5.224**
		수치심	.187	.286***		
		감정이입	.064	.059		
우회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215	-.207*	.136	8.832***
		수치심	.210	.265***		
		감정이입	-.097	-.073		

*p<.05 **p<.01 ***p<.001

〈표 8〉 도덕적 정서가 초등학교 5, 6학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R ²	F
신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346	-.354***	.237	22.844***
		수치심	.279	.349***		
		감정이입	.094	.090		
언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340	-.358***	.199	18.263***
		수치심	.212	.273***		
		감정이입	.058	.057		
적의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77	-.068	.318	34.344***
		수치심	.493	.529***		
		감정이입	.312	.256***		
흥분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104	-.099	.276	28.124***
		수치심	.438	.513***		
		감정이입	.051	.045		
부정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171	-.202*	.141	12.059***
		수치심	.227	.329***		
		감정이입	.120	.133		
우회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417	-.388***	.229	21.866***
		수치심	.211	.240***		
		감정이입	-.037	-.003		

*p<.05 **p<.01 ***p<.001

〈표 9〉 도덕적 정서가 중학교 1, 2학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R ²	F
신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46	.058	.073	3.392*
		수치심	.225	.270**		
		감정이입	-.121	-.096		
언어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43	.061	.042	1.898
		수치심	.104	.140		
		감정이입	-.216	-.191		
적의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86	.108	.116	5.712**
		수치심	.209	.253**		
		감정이입	.179	.143		
흥분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094	.108	.129	6.439***
		수치심	.306	.340***		
		감정이입	.037	.027		
부정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127	.169	.061	2.804*
		수치심	.056	.071		
		감정이입	.122	.102		
우회적 공격성	도덕적 정서	죄책감	.112	.130	.054	2.451
		수치심	.194	.216*		
		감정이입	-.110	-.081		

*p<.05 **p<.01 ***p<.001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인 영역의 공격성에는 수치심만이 영향을 미치거나(흥분성) 수치심과 감정이입능력이 영향을 미쳤다고(적의성) 볼 수 있다.

2) 연령에 따라 도덕적 정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살펴보듯이, 도덕적 정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공격성에는 죄책감, 수치심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F=22.844, p<.001$), 죄책감이 적고 수치심이 강할수록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도덕적 정서는 신체적 공격성을 23.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성에도 죄책감, 수치심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F=18.263, p<.001$), 죄책감이 적고 수치심이 클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아졌다. 도덕적 정서는 언어적 공격성을 19.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의성에는 수치심, 감정이입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F=34.344, p<.001$), 수치심이 크고 감정이입능력이 클수록 적의성이 높았고, 도덕적 정서가 적의성을 31.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분성에는 수치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28.124, p<.001$), 수치심이 클수록 흥분성이 높았고 도덕적 정서가 흥분성을 27.6%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성에는 수치심, 죄책감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F=12.059, p<.001$), 도덕적 정서가 부정성을 1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이 크고, 죄책감이 적을수록 부정성을 높게 나타냈다. 우회적 공격성에는 죄책감, 수치심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F=21.866, p<.001$), 죄책감이 적고, 수치심이 큰 경우 우회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으며 도덕적 정서가 우회적 공격성을 22.9% 설명해주었다. 즉, 초등학교 5, 6학년의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에는 대체로 죄책감과 수치심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영역의 공격성에는 수치심만이 영향을 미치거나(흥분성) 수치심과 죄책감 순(부정성), 또는 수치심과 감정이입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적의성).

중학교 1, 2학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9〉), 초등학교 5, 6학년에 비해 약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신체적 공격성에는 수치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F=3.392, p<.05$), 수치심이 강할수록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도덕적 정서는 중학교 1, 2학년의 신체적 공격성을 7.3%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의성($F=5.712, p<.01$)과 흥분성($F=6.439, p<.001$)에도 수치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수치심이 클수록 높은 적의성과 흥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정서는 적의성과 흥분성을 각각 11.6%, 12.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성은 도덕적 정서에 의해 6.1% 설명되었으나 수치심, 감정이입

및 죄책감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언어적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에는 도덕적 정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 도덕적 정서 중 수치심만이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에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만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의 영역 중 언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언어적 공격성과 고집이나 거부, 무시 등의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우회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경계하는 적의성은 여아가 높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즉, 언어적 표현으로 구체적이고 외현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공격성이나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거부, 고집 등으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반응을 보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우회적 공격성과 같이 문제성 있는 표현을 하는 공격성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며, 표현하기 보다는 타인을 경계하려는 방어적인 성향의 적의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가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다름을 의미하며, 남아가 언어적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한유진, 2005). 이는 남아보다 여아의 언어적인 공격성에 더 엄격한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암시하는 결과인 동시에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파악함에 있어 그 표현 유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발견이다.

한편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격성에 관한 연구와 치료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정서의 경우 성차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성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하는 점이 달랐으며,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 수치심은 적게 보인 대신 죄책감과 감정이입은 더 많이 나타내었다.

죄책감과 감정이입에서 나타난 성차는 여성이 타인을 배

려하는 측면과 관련된 죄책감에 더 민감하다는 Gilligan(1982)의 연구와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죄책감을 느낀다는 Williams와 Bybee(1994)의 연구에 비추어 여아의 죄책감이 남아보다 높다고 해석한 김경연과 하영희(2000)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감정이입과 죄책감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타인의 관점을 배려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더 발달된 여아가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죄책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의 죄책감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내면적 사건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크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작다고 보고한 Williams와 Bybee(1994)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수치심이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한편 새로운 학교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자아를 탐색하기 시작한 중학교 1, 2학년들의 불안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상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감정이입이 중학생에게서 더 낮게 나타난 것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큰 국내 문화의 특수성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이 과중해진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공명의 여유가 줄어들어 타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도덕성의 연령집단별 차이는 아동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유능해진다는 일반적인 발달의 원리로 예측할 수 있는 현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도덕적 정서의 발달에 있어 상황과 문화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의 상관관계는 도덕적 정서의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치심은 모든 성과 연령에서 거의 모든 영역의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죄책감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 등 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반면 적의성, 흥분성 등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과는 대체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이입의 경우, 적의성이나 부정성과 같이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과 같이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수치심이 클수록, 그리고 죄책감은 작을수록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감정이입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인 공격성은 더 크게,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은 더 적게 나타났다.

넷째, 도덕적 정서, 즉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이 공격성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과 연령에 따라 서로 공통된 결과도 있으며, 서로 다르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

먼저 남녀와 및 각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수치심은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 우회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수치심이 높은 경우 즉,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결핍되고 무기력한 경우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하거나, 타인을 경계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흥분하거나, 간접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등 더 큰 공격성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의 내적 자아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며, 공격성을 치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접근에서 단편적인 행동 수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치유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모든 성과 연령집단에서 죄책감은 적의성, 흥분성 등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여아와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고 초등학교 5, 6학년에게는 부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적의성과 흥분성이 타인을 경계하는 태도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흥분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된 공격성이고, 신체적 공격성이나 언어적 공격성과 더불어 우회적 공격성은 고집을 부리거나 거부하는 행동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행동의 표현이 있는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작용하는 공격성의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죄책감이 낮은 초기 청소년의 경우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공격성을 많이 보였으며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은 많이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치심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함하여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뜻하기 때문에 외현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모든 유형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죄책감은 특정 행동에 대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를 뜻하므로 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죄책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언어적, 우회적 공격성은 직간접으로 표현되는 행위이므로 가시적이고 외부평가나 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죄책감이 행동에 대한 외부통제를 통해 형성된 내면화된 도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죄책감이 여학생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드러나고 표현되는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남학생과 중학교 1, 2학년집단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 또한 죄책감의 속성과 각 성별집단 및 연령집단의 특성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죄책감과 같이 행동에 대한 외부통제로부터 시작해 내면화된 가치로 자리잡는 도덕적 정서의 영향력이 여학생과 초등학교 5, 6학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압력, 교육 등이 남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집단에 대

해서보다 여학생과 더 어린 연령층에 대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감정이입은 모든 성과 연령집단에 있어 전반적으로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여 공격성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도덕적 정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과 연령에 따라 도덕적 정서의 각 영역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 우회적 공격성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수치심이었으며, 죄책감과 감정이입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여아의 경우 모든 영역의 공격성에 수치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작지만 죄책감 또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이입도 적의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녀아 모두 모든 영역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치심이라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남아와 달리 여아에게는 드러나는 공격성에는 죄책감이, 정서적 공격성인 적의성에는 감정이입이 수치심과 더불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녀아 모두에게서 공격성의 가장 많은 하위요인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도덕적 정서 요인이 수치심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내적 자아가 공격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수치심의 영향력에는 성차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회귀분석 결과 여아의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모두 남아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아에 비해 여아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격성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 역시 여아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부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게 해준다. 특히 여아의 수치심은 정서적인 공격성과 관련하여 남아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초기 여자청소년이 보이는 경계하는 성향과 반항적 성향의 공격성 역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투영한 행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죄책감의 부족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여아에게서만 나타난 점 또한 흥미롭다. 이는 여아의 타인에 대한 배려나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의 외부통제가 더 강하고, 외부통제로부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특정 행동에 대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가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남아보다 더 큰 죄책감을 형성하게 되어 신체적, 언어적, 우회적 공격성 발현의 제재요소로서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죄책감의 부족은 여아에게 나타난 신체적, 언어적, 우회적 공격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아

보다 여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죄책감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수치심, 감정이입, 죄책감이 각 영역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적의성과 흥분성에 수치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에 걸쳐 공통된 결과였다. 연령에 관계없이 타인을 경계하거나 흥분하는 성향은 다른 요인보다 자신의 내면적 자아인식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크지 않은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격성의 영역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의 영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 언어적 공격성, 부정성, 우회적 공격성에는 도덕적 정서인 수치심, 감정이입, 죄책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에 수치심의 영향만이 나타나고 죄책감과 감정이입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중학교 1, 2학년의 공격성은 부정적인 자아인식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하면, 중학생이 나타내는 공격성은 행동수정 및 사회인지 훈련이나 죄책감의 함양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우며 내적 자아의 긍정적 인식 함양에 의해 좀 더 쉽게 접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 2학년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을 설명함에 있어 도덕적인 정서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중학생의 경우 공격성을 보이는 데는 도덕적 정서 외의 요소가 초등학교 고학년보다 더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외현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한다고 한 Menesini 외 5인(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있어 연령별로 그 접근이 함께 달라야 함을 알게 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가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선 시기임을 고려할 때 도덕적 정서 외 도덕성의 인지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공격성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모든 공격성 영역에는 수치심이 영향을 미쳤고 그 중 적의성, 흥분성, 부정성에는 수치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죄책감 또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부정성, 우회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에는 죄책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감정이입의 영향도 적의성에서 유의했다. 이렇듯 초등학교 5, 6학년의 공격성은 중학생의 그것에 비해 수치심, 죄책감, 감정이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었으며, 또한 수치심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공격성의 영역과 죄책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 공격성의 하위영역 별로 작용하는 도덕적 정서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5, 6학년의 공격성은 도덕적 정서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으며, 공격성 영역별로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 공격성 영역에서는 수치심이 많이 작용하고 가시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 영역에서는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언어나 행동으로 공격성 드러낼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죄책감의 발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경계하거나 흥분하는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을 발견했을 때는 수치심을 비롯한 내적 자아의 치유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죄책감과 수치심은 작을수록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비해 감정이입은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의 요인으로 설명되어져 왔던 감정이입능력이 공격성 특히 정서적인 영역의 공격성을 발휘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져 흥미롭다. 앞서 상관분석에서도 감정이입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체적, 언어적, 우회적 공격성이 증가하였고, 감정이입능력이 클수록 적의성과 부정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의 영역별로 감정이입의 영향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이입능력이 뛰어날수록 드러내 표현하는 공격성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경계하거나 흥분하는 등 정서적 측면의 공격성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 (Menesini 외 5인, 2003; 하영희, Edwards, 2004)와 일치된 결과이며, 후자는 선행 연구결과 (Menesini 외 5인, 2003; 하영희, Edwards, 2004)와는 상반된 결과로, 몇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감정이입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상태를 동일시 하고자 하는 정서의 한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격성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적 상관은 청소년이 상대방의 공격적 태도를 읽고 그에 대한 공감대응으로서 공격적인 정서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감정이입이 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이 아닌 적의성, 흥분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적용할 경우, 초기 청소년이 상대방의 태도를 과대해석하거나 오해하여 과잉감정이입을 한 결과 정서적 공격성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와의 방법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Menesini 외 5인(2003)이 공격적인 행동

을 만화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장면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감정이입 등의 도덕적 정서를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장면에 대한 감정이입능력을 측정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아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입능력을 측정하여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방법론적인 차이에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공격성은 하위영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도덕적 정서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치료와 개선에서는 공격성의 영역과 성과 연령에 따라 도덕적 정서의 함양을 달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의 발달 정도에 따라 공격성이 나타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을 행할 때 구체적인 본인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느끼는 각각의 죄책감, 감정이입 및 수치심을 살펴보거나, 또는 가설적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상황에 대한 각각의 도덕적 정서를 측정한다면, 공격성과 도덕적 정서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성의 일부인 도덕적 정서만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정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덕성의 많은 부분이 인지적 접근으로 측정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후에는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므로 이러한 인지발달단계의 특성상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성의 정서적 측면과 함께 인지적 측면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밝혀진 내적 요인들이 있었으나, 도덕적 정서 영역에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수치심과 같이 내적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나타내는 도덕적 정서가 공격성과 더불어 연구된 바 없었으며, 본 연구는 수치심과 죄책감, 감정이입이라는 도덕적 정서의 세 영역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감정이입이 공격성의 영역에 따라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소일수도 있음을 고려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과 연령 및 공격성의 영역별로 도덕적 정서가 달리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연, 하영희(2000). 죄책감과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위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5-125.
- 김경연, 하영희(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 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경희(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희조(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재경(1998). 인지적 행동수정 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선호(2005). 공감훈련 프로그램적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보기, 강석기(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서주연(2006).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경일(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 심종은, 이영호(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전철은, 현명호(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51-162.
- 정은수(1985). 죄의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 하영희, Edwards, C. P.(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유진(200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 황정규(1964). 행동집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 Atwater, E.(1992). *Adolescence(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Ross, D., & Ross, S. A.(1961). Imita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3-11.
- Bedford, O., & Hwang, K.(2003). Guilt and shame in Chinese culture: A cross-cultural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ity and identit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3, 127-144.
- Ben-Ze'ev, A.(1997). Emotions and morality. *Journal of Value Inquiry*, 31, 195-212.
- Berndsen, M., Pligt, J., Doosje, B., & Manstead, A. S. R.(2004). Guilt and regret: The determining role of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harm. *Cognitions and Emotion*, 18(1), 55-70.
- Blum, L. A.(1980). *Friendship, Altruism,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uss, A. H., & Durkee, A.(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1, 343-349.
- Davis, M. H.(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odge, K. A.(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 A., & Somberg, D. R.(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Eisenberg, N.(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Psychology*, 51, 665-697.
- Eisenberg, N., & Fabes, R. A.(1991). Prosocial behaviour and empathy: a multi 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Reviews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21, 34-61.
- Eisenberg, N., & Fabes, R. A.(1995). The relation of young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 to social competence,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ognition and Emotion*, 9, 203-229.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 Eisenbud, L.(1993).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correlates of children's reactions to oth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55-663.
- Fabricius, D.(2004). Guilt, Shame, Disobedience: Social Regulatory Mechanism and the "Inner Normative System". *Psychoanalytic Inquiry*, 24(2), 309-327.
- Fedewa, B. A., Burns, L. R., & Gomez, A. A.(2005).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and the shame/guilt distinction: adaptive and maladaptiv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609-1619.
- Frued, S.(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in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J.(2003). Shame, guilt, and violence. *Social Research*, 70(4), 1149-1180.
- Hoffman, M. L.(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Hoffman, M. L.(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esmann, L. R., & Miller, L. S.(1994), Long-term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to media violence in childhood. In L.R.Huesmann (Ed.), *Aggressive behavior: Current perspectives (pp.153-186)*. New York: Plenum.
- Kaufman, J. M.(1989).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of children and youth(5th edition)*. New York: MaCmillan.
- Leith, K. P., & Baumeister, R. F.(1998). Empathy, shame, guilt, and narratives of interpersonal conflicts: Guilt-prone people are better at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6(1), 1-37.
- Lewis, H. B.(1971). Guilt in obsession and paranoia. In C. E. Izard(Ed.), *Emotions and personality in psychopathology (pp. 399-414)*. New York: Plenum Press.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orenz, K.(1966). *On aggression*(M.Wilson, Tra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Marschall, D., Saftner, J., & Tangney, J. P.(1994).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A.
- Mehrabian, A., & Epstein, M.A.(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3-543.
-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 515-530.
- Olthof, T., Ferguson, T. J., Bloemers, E., & Deij, M.(2004). Morality-and identity-related antecedents of children's guilt and shame attributions in events involving physical illness. *Cognition and Emotion*, 18, 383-404.
- Patterson, G. R.(1976). The aggressive child: Victim and architect of a coercive system. In L. A. Hamerlynck, L. C. Handy, & E. J. Mash(Eds.), *Behavior modification and families. I.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Brunner-Mazel.
- Pedersen, A., Beven, J., Walker, I., & Griffiths, B.(2004). Attitudes toward indigenous Australians: The role of empathy and guilt.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233-249.
- Tangney, J. P.(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pp 1-17)*. San Diego: Academic Press.
- Tangney, J. P., & Dearing, R. L.(2002). *Shame and Guilt*. NY: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Wells, M., & Jones, R.(2000). Children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Williams, C., & Bybee, J.(1994). What do children feel guilty about? Developmental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17-623.
- Wolff, M., Rutten, P., & Bayer, A.F.III(1992). *Where we stand: Can America make it in the race for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ew York: Bantam Books.
- Zahn-Waxler, C., Cole, P. M., Welsh, J. D., Fox N. A.(1995).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with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 27-48.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Chapman, M.(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2007년 3월 31일 접수, 2007년 6월 28일 채택)